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익산시 무암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음 10월 22일) 제21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기재부 예타조사 통과

전북도-도내 정치권, 중앙부처 협력 등 이뤄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12억원 규모 투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27일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에 따르면 가력선착장 확장의 총사업비는 당초 868억원으로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KDI) 점검회의 결과 1.012억원으로 증액,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B/C) 분석 결과 1.09로 경제적 파급 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의 최대 쟁점은 가력선착장의 어선 수용능력으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에 필요한 작업선을 기준으로 2중 중첩안을 적용하여 접안대수를 총 256척으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가력선착장이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되어 거주지와 22.0km ~ 46.9km(26 ~ 56분) 떨어져 있다

는 것과 2중 중첩안시 바깥쪽에 계류된 어선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출·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없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류방식이므로 1중 중첩안으로 산출할 경우 어선 수용능력이 360척에서 150척으로 줄어들어 확장이 시급하다는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이를 뒷받침 할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휴식용 소형선 부두'의 어선의 계류중첩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존 및 신규시설 모두 1중 중첩안 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어 이를 반영시킨 바 있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서 예타조사위원의 현장 확인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수많은

쟁점을 해소,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반박 논리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최정호 정부부지사 및 담당 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KDI를 수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인 사업 타당성 논리를 설명, 김종희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정책질의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그리고 정부부처 모두의 협력과 지지로 한마음·한뜻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대통령의 강한지시로 속도감 있는 개발과 내부용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측 조업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부개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으며, 가력선착장을 전북도 대표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책 읽는 도시협의회 창립 총회'가 열렸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대한민국 독서문화 이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책 읽는 도시협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국책 읽는 도시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독서문화를 이끌게 됐다.

전주시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책 읽는 도시협의회 창립총회'에 회원도시 자격으로 참가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책 읽는 도시로 인정받은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출판진흥 정책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전주시를 독서진흥에 가장 앞장선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했으며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규모의 책 박람회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매년 자체적으로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하는 등 도시 곳곳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

는 독서정책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11개 시립도서관과 28개 공립작은도서관, 8개 사립작은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 1개소 등 도서관 인프라를 갖춰 모든 시민이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멀리 떨어진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길잡이 양성·파견 △활동공간 지원을 위한 공간·농·수업 등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펼쳤다.

시는 향후, 책 읽는 공동체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사업 등 독서진흥과 책 생태계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서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가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 구현 △학습, 연구, 지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지식정보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나 삶과 영혼을 윤색하게 가꿀 수 있도록 전국 책 읽는 도시들과 연대해나갈겠다"고 강조 했다. /송효철 기자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조직위 구성·국가의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SOC 확충 효과

세계잼버리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차례의 협의회(23회)를 갖고 기관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작성, 그 법률안은 지난 4월 30일 22명의 의원이 찬성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5~10월)을 거치는 과

정에서 전북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19회(실무자 13회, 지휘부 6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법사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취지 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별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12월 본회의의 심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내년 1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도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 7천억원, 전북에는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이다. /김진성 기자

유치원 휴·폐원 증가, 대안은 없나?

민주 이혜찬 대표 "당정 간 협의 긴밀히 해주길 부탁"

유치원 3법 국회서 공전 거듭 연내 통과 불투명해져

유치원 휴·폐원 숫자가 한달 사이 평균 숫자를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폐원하

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원·폐원하는 유치원 숫자가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혜 교육부장관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그 인원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장은성 기자 <2면에 계속>

세기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